주일예배
오전 (1부) 대성동 7시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집회 (밤)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5월 5일 (제688호)

주일예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뭉우칼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썩은 강물을 살리는 방법은 먼저 샛강을 살리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썩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살려야 한다.

사회가 너무 병들었다. 위아래도 없는 사회, 제멋대로의 사회, 묻지마 살인까지 난무하는 병들대로 병든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상이다. 이 난치병을 고치는 방법은 사회에 메스를 댈 것이 아니라 가정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정은 최초의 교육기관이고, 더불어 최고, 최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제 구실을 못하고, 그저 사육장으로, 잠자는 곳으로 전락하니 양육되지 못하고 사육된 아이들이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가정의 불행은 절대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정이 화목해야 할 이유는 많다. 첫째 이유는 사랑을 받아본 아이가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되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바가지가 집에서 안 새야 밖에서도 안 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골3:20), 부모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하고 노엽게 하지 말며(골3:21),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골3:19),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골3:18).

매일 집에서 싸운 것만 보는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나와서 위아래도 없는 막무가내가 된다. 그러니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한다. 그러면 사회는 저절로 순화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가정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저 행복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필요는 찾고 두드리게 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릇과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저 쥐어준 것이 아니었다. 출애굽의 모험과 기나긴 광야길, 그리고 여리고성 공략부터 시작된 지난한 싸움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거저 주었다가 저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빼앗긴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후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도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지역들이 있다. 남미뿐 아니라 몽골,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그러나 벌써 네 차례나 한 지역으로 쏠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았다.

우리가 보내는 153구제물품은 화물선으로 인천항을 출발하여 태평양을 지나 우루과이(Uruguay) 몬테비데오(Montevideo) 항에 도착하기까지 달포는 걸린다. 거기서 다시 육로로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에 전달된다. 그러면 파라과

모두 나누어주고 싶다'는 말이나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보낼 계획이라고 하시면, "안돼요. 우리에게 보내주세요."하며 떼를 쓰는 그녀의 모습에서 당장 생각하기에는 '뭔 그런 욕심을 부리나'하겠지만, 이는 그녀만의 노하우와 당당함이 묻어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 주어졌다고 해도 첫 광야세대는 받을 그릇이나 담대한 용기가 없었기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주어진 밥상을 차고 말았다.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쓸쓸히 광야에서 죽어갔다. 그러

제4차 153구제물품 파라과이 우루과이 선적(2013.4.23, 인천예수중심교회)

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그 역시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가능한 일이다.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

지난 주 화요일(4월 23일), 인천교회에서는 제4차 153구제물품 파라과이(Paraguay) 선적행사가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헌신으로 보내준 구제물품들이 총 568박스로 포장되어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로 발송되었다. 이 구제물품들을 수집, 분류, 포장하는 데에는 우리 신학생들과 인천교회 정광훈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날도 대형 컨테이너에 박스를 선적하는 일에 우리 신학생들이 수고해주었다.

벌써 네 차례나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로 보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 생각이 깊었다. 사실 우리 153구제물품이 필요한 지역이 어찌 파라과이 뿐이겠는가? 우리 교단의 여러 해외 선교지 가운데에

이 예수중심교회 이현숙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교회 일꾼들이 나와 선교센터 창고에 물품을 쌓고 몇날 며칠을 지새우며 다시 분류작업을 한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전도용으로 쓰기 위해 분류포장을 다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긴 의류, 신발, 가방 등은 전도팀의 손에 들려 인디언 마을의 각 가정으로 전해진다. 파라과이 인디언 촌에서는 감히 일생에 만져보지 못할 귀한 옷들인지라 전도에 매우 유용하다는 소식이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가 나날이 부흥성장하고 있는 데는 우리의 153구제물품이 엄청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는 받을 그릇과 그것을 이용할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선교사가 목사님만 보면 입버릇처럼 '파라과이 600만에게

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은 내 밥'이라는 믿음의 그릇과 전투적인 용기로 약속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였다. 수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복전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한 용기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한 것이다.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신다. "꿩 잡는 게 매다." 이는 매가 꿩을 잡는다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꿩을 잡아야 매의 값어치가 있다'는 자격을 말씀하신 거다. 돈, 명예, 지식, 학벌, 미모 등 어떤 치장된 외적 조건이 성공의 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외적 조건이 어떠하든 문제의 답을 끌어내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자, 바로 성경은 그런 성공자의 기록이요, 이 시대 이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덕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초석 목사 체코 & 슬로바키아 집회
▶일시:2013년 5월 13일(월)~23일(목) ▶장소: 브르노(Brno) &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룻2:1~12)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품으로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방여인과 결혼시키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처참한 심정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데, 문제는 과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방여인들인지라 나오미는 그들에게 친정에 돌아가 새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1:16~17)라며 나오미를 붙좇아서 나오미는 하는 수 없이 룻을 동반하고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때는 추수기였습니다. 마침 룻은 이스라엘의 관례대로 보리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 떠나면 죽는 법이다

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룻2:11)라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정을 다한 것을 칭찬하면서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룻2:12)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를 내치지 않는다고 보아스가 말한 것입니다.

추측건대,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사건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그녀는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군을 숨겨주어 화를 면하게 해주었고(수2), 그로 인해 그녀의 일가는 여리고가 함락될 때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가나안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한 신이라 믿었고, 그 아래 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 아래 거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온전한 상으로 그녀의 아들인 보아스를 베들레헴의 유력자로 키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안 보아스였기에 룻에게 이렇듯 축복을 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축복대로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영원한 보호를 받으며 보아스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당신 품으로 들어온 자를 안전하게 다 품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7~39).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를 하나도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나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 하룻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6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셔서 도피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자는 결코 내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피 값을 주고 산 우리를 죄 지었다고 내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 품으로 들어오면 다 용서해주는 것과 같지요. 잘못했을 때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문제지요. 그들에게 왜 집을 나왔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부모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야단맞을 거 같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야단을 맞아도 부모님 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갓 선지자를 통해 어떤 심판을 받을지 고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맞을래?' 하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는 7년 기근이요, 하나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요, 하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때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삼하24:14). 다윗의 선택은 피폐된 세상에 붙여지기 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매 맞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입니다. 비록 잘못을 해서 매를 맞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를 어찌 하나님이 사랑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죄가 없어 믿음의 전당에 올라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가 어찌 사울보다 작겠습니까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고, 더욱 그의 품에 파고 들어가 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살다보면 죄를 짓습니다. 잘못도 합니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방패와 요새가 되신다

다. 실수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 물론 죄와 피 뿌리기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방황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고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을 맞으시고 온전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그의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창16:9~10)고 말합니다. 주인의 날개 아래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날려 보낸 비둘기가 털에 더러운 흙을 묻히고 돌아왔을 때, 노아가 손을 내밀어 맞아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당신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힘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세요.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행복과 축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시91:1~2). 할렐루야!

수화통역 예배안내

금요집회
매주 주일 10시 & 2시 예배

주축복 전도사 (서울)
010-3256-0288

김서분 전도사 (인천)
010-7160-5497

::객원컬럼::

나의 첫사랑은 영원하다

1977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여왕 5월, 우리 학교는 버들 길이 유명했다. 교문에 들어서면 양옆으로 축축 늘어진 버드나무가 있어 해마다 5월이 되면 교정에서 '버들 길 시화전(詩畵展)'이 열렸다.

나는 시를 좋아하는 문학소녀였다. 내 시를 화폭에 담아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미대 다니는 실력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었다. 콜롬보 제과점이었던가. 한 사람이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하얀 얼굴, 선하면서도 집중적인 눈, 가지런한 이, 단정한 손톱, 나는 첫 눈에 반했다. 머릿속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는 해남 땅 끝으로 여행을 떠났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들판에는 온통 초록색의 버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고, 우리는 긴 신작로를 따라 손을 잡고 걸었다. 기쁨과 환희와 설렘 속에서 윤동주와 헤르만 헤세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했다. 방학이 끝나고 나는 매일 편지와 엽서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엽서 한 장이 날아왔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간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풋사랑의 아련한 그리움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졌다.

1991년 방배동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 집사님의 전도로 난생처음 교회에 갔다. 체육관 맨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하루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목사님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환한 불빛에 비친 목사님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하얀 얼굴에 아이보리 양복이 잘 어울렸다. 마른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 있는 훌륭한 메시지, 강렬하면서도 번뜩이는 정신적인 눈, 학처럼 고고한 경건의 모습, 나는 첫눈에 반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러한 목사님을 본 적이 없었다. 몇날 며칠이고 목사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날을 새웠다. 금요철야예배와 주일예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 같이 여겼다고 했다. 사랑하면 칠년이 수일 같이 여겨지고 싫어하면 수일이 칠년 같이 여겨진다.

예수를 믿고 가장 궁금한 것이 성경이었다. 도대체 두꺼운 성경책 속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라는데 한 번도 가까이 해 본적이 없었다. 구약을 읽고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20장을 볼 때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가득찬 얼굴로 "랍오니여~"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데, 빨간색 네 글자가 파도처럼 출렁거리면서 "미자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 다시 보는데 또 다시 "미자야~" 하는 것이다.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과 두려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성경책이 눈물에 젖어 떡이 되도록 하염없이 울었다.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은 놀라웠다. 뿌연 안개 속을 헤매던 내 생의 한가운데로 주님은 찾아오셨다. 세상 것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고, 보아도 보아도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에게는 그 분 이상이 없었다. 아~ 이 첫사랑이 영원했으면….

목사님을 따라 온지 22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뒤돌아보면 나에게도 굴곡이 있었다. 쓴 잔을 마시고 비틀거릴 때도 있었고, 머뭇머뭇 허송세월을 보낼 때도 있었다. 언젠가 이시대 목사님께서 교역자 모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첫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는다. 만나면 가슴 설레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첫 사랑은 한 번이다. 그런 감정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그렇다. 첫사랑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아간다.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더 성숙한 인격으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해바라기 꽃이 되겠소'라는 목사님의 시가 있다. 해바라기가 오직 해만 바라보듯 주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 인생을 사시는 목사님처럼, 나의 여생도 해바라기 인생, 주 바라기 인생이 되길 소원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전미자 전도사

JC Academy series

휴먼네트워크(Human-Network)를 구축하라

지난 24일 JC 아카데미에서,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이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이들은 인맥 형성에 뛰어났다. 하나님도 지금까지 사람을 들어 쓰고 계시며, 사도 바울 역시 인맥 형성이 매우 잘 되어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몸 가운데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또 어떤 이는 손이나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것은 귀하게, 또 어떤 것은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나 이렇게 각기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지갑 속의 돈과 같은 인맥이 지금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자문자답해보라.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혼·육을 잘 가꾸어야 한다. 즉,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아 삶에 윤택함을 더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언행을 돌아보고 연구하여 더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 또한 직장 상사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물론 아랫사람까지 인정해준다면, 위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를 균형 있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돈 버는데 치중하거나 여유롭게 쉴 때가 아니다. 인맥 관리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인맥은 험한 강과 바다도 능히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 안에서 가장 미약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지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며, 더 나아가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여 매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절에도 밝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 신뢰를 쌓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 의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모두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혹여 상처 받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힘써 배우고 익히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현재 지위, 월급, 그 밖의 각종 조건과 환경을 생각해보라.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더 성장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의 인맥, 즉 사람이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살피고 그들을 더욱 성심껏 섬기라. 그리고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준 이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이 발 벗고 나서 도울 것이다.

전도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전4:12)고 말했다. 그렇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많은 이에게 유익을 주고 인정받아 사람을 얻고, 마침내 성공을 향해 도약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을 거울삼아 내적으로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그윽이 품고 우리의 언행을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자. 그리하여 영·혼·육에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젊은이들이 되자.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고려장(高麗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늙은 부모를 며칠 동안 먹을 양식만 남긴 채 산속의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내는 악습(惡習)을 말합니다. 늙고 쇠약한 부모를 낯선 곳에 유기하는 패륜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고려장이 국법으로 정해져 있던 어느 나라에 살던 효자 청년은 어머니가 늙어 고려장을 할 시기가 되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 어머니를 몰래 숨겨두고 봉양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이 나라에 어려운 문제를 내어 풀기를 요구해왔고, 이 나라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여 온 나라가 근심에 싸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문제를 들은 효자의 노모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아들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알려 주어 무사히 국난을 해결하게 되었고, 이 나라는 효자와 노모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부모 세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때부터 고려장이라는 악습을 폐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땐 늙은 낙타를 타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신재식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말을 삼가는 버릇을 들여야…

황희 정승은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와 관련된 일화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파랑새' 이야기이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이 잠이 들기 전, 부인에게 '한 쪽 귀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뽀로롱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그 말을 부인이 딸에게 전하고, 곧 소문으로 쫙 퍼진다. 얼마 후에 당시 임금인 세종이 그 사실을 확인 차 물어본다. '정승의 귀에서 파랑새 여러 마리가 정말 튀어나온 것이 맞느냐'고 말이다. 황희는 '말의 퍼짐이 얼마나 빠른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세종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요 며칠 사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들 대다수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는 말인즉슨, '내 이야기가 이상하게 돈다'는 것이다. 사소한 행동이 큰 실수로 바뀌거나, 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거나, 심지어 없는 애인이 생겼다거나 등등. 떠도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하고, 남의 흉을 보고,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 '댓글'이다.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할 것 없이 각종 기사의 댓글들은 근거 없는 말들과 비방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어찌 보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그 댓글들이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고, 하늘로 날리는 깃털을 다시 모으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 치 혀로 쉽게 말하고 쉽게 전하고 쉽게 옮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내가 흘뿌리고 다닌 말들이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끝없이 올라오는 악성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았다.

가장 가볍고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을 가장 무겁고 진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누군가 나의 말을 전해 듣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도 부끄럽지 않게끔 말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6).

전훈지
ppjee@hanmail.net

Q&A

Q: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요?

A.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로마서 1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선민과의 언약은 결코 무효화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배척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불순종하는 것은 구원이 온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종말론적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 선지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버려질 수는 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Good News

영국 출신의 소설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C. S.루이스는 금세기 위대한 크리스천 평신도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케임브리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찾아와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설교를 하셨다면 큰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고리타분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루이스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야할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나?", "아, 그렇고말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학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온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자네도 살아오면서 실수한 적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네 물론 인정합니다." 루이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자네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자네는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더욱 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강성한 영성을 갖춘 자녀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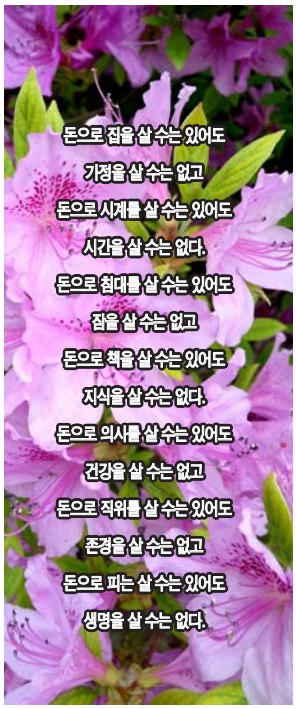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미션스쿨을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자신은 복음송을 부르는 시간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복음송이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곡인지 물어봤더니, 답을 못한다. 내친 김에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 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이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선생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믿기세요?"부터 심지어 거짓말 같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주님의 절절한 구원의 사랑을 설명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표정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다.

유년의 시절 우연히 찾아 간 주일학교 예배시간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이라는 찬송을 들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시절의 찬송이 구원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믿음의 씨앗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 당시 심령에 뗘어졌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장성하면서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자녀를 빛나는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녀와 늘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바로 빛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 양성소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심결에 아이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부모임을 알아야 한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모질어져만 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려면 육체의 강건함을 비롯하여 빛나는 영성을 지닌 자녀로 키워야 하겠다.

아래 맥아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도 나의 자녀의 강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로 살아가려한다.

<중략>

그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아들…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토록 하소서. 아멘!

지순아
lovelyactor@naver.com